

'현우경' 이야기 (33)

미묘 스님의 전생

옛날 어느 나라에 포악한 왕이 살았다. 그는 매일 술 취한 꼬끼리를 마을에 풀어 놔 여러 사람들을 다치게 했다. 그때 나라 안에 모든 여자들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불안감에 출가를 결심했다.

"우리도 언제 화를 입을까 모르니 차라리 출가하는 게 나을 듯 싶습니다."

여자들은 모두 출가해 비구니가 됐다. 하지만 속세의 생활을 잊지 못해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들은 생각했다.

"이렇게 생활하다가 어떤 법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스승을 찾아봅시다."

그들은 미묘라는 비구니 스님을 찾았다.

"집을 떠나 출가했으나 아직까지 마음이 세속에 갇혀 깨우치기가 힘듭니다."

"세속을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을

업매는 감옥과 같다. 앞으로 내 얘기를 들려 줄 테니 잘 듣거라."

미묘는 부잣집의 막내딸로 태어나 많은 예쁨을 받으며 자랐다. 미묘는 한 남자를 만나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았다. 시간이 흘러 둘째를 임신하게 된 미묘는 친정에서 아이를 낳고 싶다고 남편에게 말했다. 남편은 흔쾌히 허락하고 그 길로 함께 길을 떠났다.

친정으로 향하던 미묘는 남편과 길에서 잠시 쉬던 중 진통을 느껴 둘째를 출산하게 됐다. 그런데 갑자기 뱀이 나타나 남편을 물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미묘는 너무 슬퍼 어쩔할 바를 몰랐다. 하지만 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친정으로 다시 향했다. 그런데 길 옆에 큰 강이 나타났다. 미묘는 우선 갓난아이를 안고 강을 건너 뒤, 아이를 두고 다시 큰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강을 건넜다. 그때 큰 아이는 엄마를 보고 강 저 달려오다 그만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전생의 구업이 금생의 고통으로...



삽화 · 강병호

미묘는 다시 강을 건너 갓난아이가 있는 쪽으로 왔지만 그 사이 짐승이 먹어 버리고 말았다.

미묘는 망연자실했다. 간신히 친정에 도착한 미묘는 자신의 집이 모두 불에 타 없어진 걸 알았다. 그때 이웃사람이 미묘에게 말했다.

"얼마 전 집에 불이나 모든 식구가 죽고 말았네."

미묘는 또 절망했다. 하는 수 없이 친척 집에 살게 된 미묘는 우연히 지인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됐다. 하지만 새 남편은 주정뱅이에 매일 같이 미묘를 때렸다. 미묘는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왔다. 길을

배회하던 미묘는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게 됐다. 그 남자가 미묘에게 말했다.

"그대의 얼굴은 왜 이렇게 안 좋은 것이요?"

미묘는 그간의 사정을 남자에게 말했다. 남자 역시 얼마 전 부인과 사별해 홀로 지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다시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는 큰 병을 얻어 갑자기 죽고 말았다. 미묘 스님이 다른 비구니 스님들에게 말했다.

"나는 출가해 현재 받는 고통이 전생에 지은 업으로 인해 일어난 것임을 알았다."

"스님은 어떤 죄를 지어 그리 고통받고 사신 것입니까?"

옛날 한 부자가 있었다. 하지만 그 부자는 자식이 없어 둘째 부인을 얻게 됐다. 둘째 부인은 얼마 후 임신해 딸을 낳았다. 그 상황을 모두 지켜본 첫째 부인은 생각했다.

"저 아이가 자라면 이 집안 재산을 모두 가질 것이다. 나는 재산이라도 지켜야겠

다."

첫째 부인은 결국 아이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매일 같이 아이 정수리를 바늘로 찔렀다. 결국 아이는 고통 속에 말라가다 열흘 뒤에 죽게 됐다. 둘째 부인은 첫째 부인이 자신의 아이를 죽인 것을 알고 말했다.

"당신이 내 아이를 죽인 것이요?"

하지만 첫째 부인은 발뺌했다.

"내가 너의 아이를 죽였다면 내 남편은 독사에 물리고 자신들은 물에 빠져 죽거나 짐승에 물려 죽을 것이다. 또 내 부모 형제도 모두 불에 타 죽을 것이다."

미묘 스님이 말했다.

"그때 그 첫째 부인이 나이다. 하지만 훗날 부처님을 만나 가르침을 받고 현재에서 출가해 아라한의 도를 얻게 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사탕 욕망과 탐욕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느니라."

구성=이은정 기자 soe84@hyunbul.com

**대장경 속 우화** 35

- 무지한 스님에게서 도를 얻다 -

구성·김흥인

스님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 마이크 목걸이

A 타입 영주곡기 25mm ₩ 65,000

B 타입 영주곡기 16mm ₩ 55,000

☆마이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A+B (1set) ₩100,000**

택배비무료

주문전화

구 미 미륵사 (지연) 010-8631-3527

팔공산 정원사 (성봉) 016-849-8889

거제도 정토암 (진각) 010-6657-5522

대구 포교사 (법일) 010-9591-8599

☆유\*무선  
☆경\*용

입금계좌(예금주: 미륵사)  
농협 351-0251-7333-73  
우체국 700914-02-063333

NAVER 영일상사

## 불기 닦는일 힘드시죠!!

(佛器)

아주쉽고 빠르게 닦이고 광택이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촉대, 향로, 우대, 유기, 제기, 놋쇠,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특징**

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3. 코팅 광택약이라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4.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5.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중량 525g, 유효기간 10년

※본 제품은 10년간 사용해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농협 312-0029-1189-81(예금주: 고태웅)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영일상사**

## 해동 제일약사도량 동해약령사

해파스님의 원력과 약사여래의 가피로 불자님의 심신을 치유합니다. 도량의 맑은 기운과 자연에서의 섭생으로 **아토피, 건선, 고질적 피부병**은 물론 **지쳐있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십시오.

피부병(아토피, 건선 등)에 관한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을 통한 **질환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맑은 물 동트는 동해시 두타산 자락에 편안히 자리잡은 약령사에서 새벽 산사의 독경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소리와 파도소리...

변잡한 일상과 도시를 떠나 맑은 공기속에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함과 말없음과 움직임과 고요함, 그 모두에서 나 자신을 찾아 삼매에 듭니다. 심신이 약하고 허해서 오는 마음의 병부터 온갖 세속의 고통에 찌들어 뼈속까지 상처가 들어간 난치병에 이르기 까지 약사여래의 무궁한 가피력으로 스님의 지극한 기도와 정성 더없는 발원으로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는 청정도량입니다.

△약령사 법당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조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 방부제, 인공향유, 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정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약령사 천연 초제 비누

불자님의 인연에 따라 약령사에서 직접 기도하면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령사 주지 해파 합장 전파주사면 성심성의병 상담하여 드립니다.**

강원 동해시 대구동 174-2 / 전화 033)521-5453